



밀알&세계 **MILAL & WORLD**

05 2017 | Vol.297

# 아프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를 출산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을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파리에 대한 여행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파리에 가면 그 유명한 에펠탑을 가보고, 그 곳에서 멋진 사진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세느 강변을 거닐며 산책 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프랑스 파리에 가는 비행기 표를 구입해서 출국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프랑스로 떠나는 날이 왔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아름다운 나날들을 상상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흐른 뒤 비행기는 어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내 방송은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내가 프랑스 파리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웬 아프리카?

하고 승무원에게 물어 보았지만 여기는 정말로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여기는 아프리카가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상상이 물거품으로 변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몇 달 전부터 프랑스 여행을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 프랑스에 어울리는 옷과 모든 계획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과 분노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기분 나쁜 뜨거운 열기가 화를 돋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서 이제는 ‘정말로 아프리카에 왔구나!’라고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프리카에 뭐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처음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마음이나 불만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왕 아





### 표지사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행복하길 바라며, 특히 외롭고도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게 더 세심한 관심과 사랑, 축복이 깃들길 기도드립니다.

### 차례

- 02. 칼럼  
아프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04. 가정의 달에  
운명 교향곡
- 06. 풍성한 나눔  
봄이 찾아오는 밀알카페
- 08. 섬김의 기쁨  
사랑을 그리는 미술교실
- 10. 제7회 필라밀알 가족수련회  
따뜻한 가족이 있기에 밀알은 행복합니다
- 12. 함께하는 소망  
우리 함께 꿈꿔요. 드넓은 밀밭의 꿈을
- 14. 밀알과 함께  
희망의 노래
- 16. 밀알지단 소개  
아르헨티나밀알에서는

## 밀알&세계

뉴욕 · 코네티컷 · 뉴저지 · 필라델피아 · 캐나다 통합판

통권 제297호 | 2017년 5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강원호, 정택정

지역별 구독문의  
뉴욕: 718-445-4442 | 코네티컷: 203-733-0156  
뉴저지: 201-530-0355 | 필라델피아: 267-475-8637  
캐나다: 416-491-0002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카에 왔으니 아프리카에서 신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눈엔 아프리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석양이 있었고, 아침에 빛나는 보석처럼 맺히는 이슬이 있었으며, 난생 처음 보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매일 매일 그녀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곳이 프랑스 파리는 아니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여행은 아니었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장애’, 이것은 마치 프랑스 여행을 계획한 사람에게 아프리카에 도착한 것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 아프리카에 온 것을 탄식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비록 내가 계획하고 온 곳은 아니지만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아름다움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장영준 목사 (시애틀밀알, 단장)





■ 가정의 달에

## 운명 교향곡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만난 건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아내는 그때 까지도 꿈 많던 소녀였고 나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재벌인 S그룹 장녀였던 아내와, 대학 학장을 부친으로 둔 내가 결혼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가 여기 저기서 느껴지던 시샘과 동경의 눈빛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미국으로 날아가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자라고, 화려한 대학 생활, 눈부신 오월의 결혼, 그리고 평탄하기만 한 유학생 생활.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나나 아내에게 이렇다 할 만한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했을 뿐, 오히려 그것을 젊음을 즐긴다는 신호로 알고 마음껏 청춘만세를 외쳤던 우리...

빛나는 태양, 푸르른 파도, 떠가는 구름, 센트럴 파크의 싱그러움, 와이키키 해변의 은빛 물결들...

별로 힘든 것 없이 박사학위를 따서 귀국한 그 해 겨울, 행

운이 겹친다고나 할까요. 나는 원하던 대학에 교수 자리를 얻었고 아내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국해서 처음 얼마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내의 임신을 알게 된 그 날, 우리는 그야말로 성대한 파티를 열었지요. 양가의 부모, 일가친척 등 알 만한 사람은 다 불러서 임신을 선포(?)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던 그 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노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노라고 큰 소리로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차로 넘실대는 한강 다리, 유난히 푸르게 보이던 강물...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꿈만 같던 시절이 다 끝난 어느 날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며 저주나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나나 아내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 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뇌성마비... 아내가 술이나 담배를 한 것도 아니었고 마약 같은 건 더더구나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태교를 위해 나쁘다는 건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말 못하고 몸 가누지 못하고 손이 오그라든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저주받은 운명을 생각했었습니다.

운명. 운명. 운명... 아내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나는 계속해서 술만 마셨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폐인이 되어 서로 갈라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독한 자존심과 가문에 대한 수치심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기 바빴던 우리가 그 날, 그 부부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하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도 않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뒷머리가 쿵 하고 아팠던 건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주치게 된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온 식구가 이미 우리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듯 거실에 나와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집 아이와 똑같은 소녀가 휠체어에 앉아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오그라진 손가락으로 툭툭 박수를 쳐 대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한참을 머뭇거리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들 와~ 하며 박수를

쳤고, 휠체어의 소녀는 기뻐서 미치겠다는 듯 마구 몸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때부터 돌아와야 하는 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감격시켰던 건 그 집 식구들의 뇌성마비 소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쉬쉬거리고 그 애 때문에 결혼생활마저 파탄에 이른 우리와 달리, 정말 그 아이를 천사처럼 여기는 그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하, 그 사진들은 전부 이 아가씨 것들이죠." 거실이며 안방 벽 사방에 붙어 있는 단 한 사람의 사진들...

"다른 애들 것은 앨범에 붙여 놔도 언제나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아가씨 그렇게 못 하거든요." 친절하게 제목까지 붙어 있는 사진들을 죽 둘러보며 우리 부부는 기어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이런 딸애가 있답니다." 얼마 뒤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쩐지... 저희도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요. 저 애가 태어났을 당시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렇지만 곧 우리 부부는 저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크리스천입니다."

"..."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섭리를 깨달을 때만이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뇌성마비인 언니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즐겁게 노는 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집 주인이 했던 말을, 이젠 거꾸로 우리 집에 방문하는 이들이 듣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우연히 방문했던 그 날의 만남을 기막힌 '운명'이었다고 부를 것입니다. 🌊

글 | <낮은울타리> 2007년 5월호 31-33p에서 발췌





## ■ 풍성한 나눔

# 봄이 찾아오는 밀알카페

원래 봄은, 겨울이 가나보다 하면 어느새 여름이 와 버려서 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왔다가 가버리곤 했는데, 올해는 봄이 참 유난스럽게 와서 여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 일찍 찾아온 따뜻한 봄 날씨 때문에 오히려 겨울이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한순간 찾아온 추위로 인해 활짝 피었던 꽃들은 황망히 몸을 움츠려야만 했다. 게다가 때 아닌 토네이도까지.... 올 워싱턴 지역에 찾아온 봄은 정말 그 어느 해 보다도 유별나다.

그런데 워싱턴밀알에는 봄 날씨만 유별난 것이 아니다. 밀알카페에 깃든 봄기운 또한 매우 시골벽적이다. 밀알카페는 원래 어떤 유형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는 심과 회복이, 일반들에게는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워싱턴밀알 본부에서 매주 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일본 사모님께서 매일 정성껏 준비하시는 점심을 함께 하며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박성식 간사님과 함께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센터에 가서 탁구, 농구 등의 운동을 함께 하며, 장제원 목사님과 함께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외롭고 답답하게 집에서만 갇혀있기 쉬운 장애인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 밀알카페가 봄을 맞아서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무형의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하여 멋진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여름에 한 집사

님의 귀한 섬김으로 마련된 건물 외부에 있는 멋진 데크에 2개의 빨간색의 고급스런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들이 자리를 잡았고, 본부 사무실과 예배실 중간에 있는 다용도 친교실에 말 그대로 ‘그냥’ 있었던 구석구석의 공간들이 어느 전문 카페 못지않게 예쁘고 멋있게 꾸며지고 있다. 정일본 사모님께서 발품을 팔아서 아기자기한 멋진 소품들을 구비하시고, 커피메이커, 토스트기, 정수기 등을 비치하였고, 저먼타운의 <빵 굽는 마을>과 락빌에 있는 <베이글타운>에서 매주 도네이션해주시는 너무 맛있는 빵과 베이글, 그 외에도 갖가지 간식거리들이 항상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인근 교회의 젊은 애기 엄마들이 신앙적인 교제를 갖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든지 와서 맘껏 시간을 보내라고 초청하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이 멋진 밀알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 잔 하시고 가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봄기운처럼, 밀알카페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열매 맺혀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친교를 나누는 공간,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 우리가 꿈꾸는 밀알카페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 🌈

글 | 장제원 목사 (워싱턴밀알 총무)



■ 섬김의 기쁨

## 사랑을 그리는 미술교실

뉴욕밀알선교단에서 미술 클래스를 맡게 된 것이 벌써 4년째로 접어든다. 밀알의 친구들과 함께 해 온 시간들이 참 고맙고 의미가 깊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회사에 취직해 돈을 벌며 생활을 하고 명예와 부를 쌓는 데만 이용한다면 나는 얼마나 못된 사람일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할 일은 없을까? 나의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랑의교실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믿음은 사랑의교실에 오는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 큰 확신으로 이어졌다. 세상적으로는 한 없이 부족해 보이고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저들이 표현하는 세계는 우리를 한없는 순수와 맑음으로 정화시킨다.

매주 사랑의교실 수업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 이번 주는 무엇을 주제로 같이 해볼까? 어떤 재료를 골라야 손이나 팔 근육에 힘이 생기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줄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더 느끼게 해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일반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지만,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됐다.

고르고 고른 재료들을 펼쳐 놓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어떤 친구는 집중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친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따라 한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크레용을 집어 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부탁한다. 풀이며 가위며 색종이를 건네주기도 한다. 작품의 결과물 보다 수업을 같이 하는 시간이 더 감동적일 때가 많다. 표정이 없던 친구들의 얼굴에 다양한 감정선이 교차하기 시작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부모님께 선물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 친구들... 부모님들은 이 선물 받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처음엔 모든 것이 내 맘 같지 않았다.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세계를 보여 주고 싶다는 욕심에 데생도 가르쳐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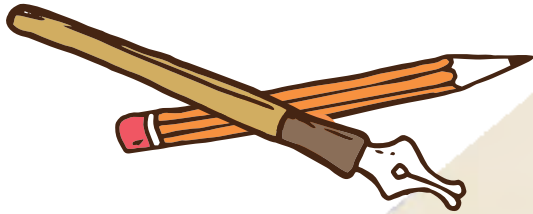
조각도 같이 해보고 싶었지만 손목에 힘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 관찰력이 따라 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 줄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들이 미술 수업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 나왔다.

사람들은 ‘장애’라는 말에서 ‘열등함’이란 의미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밀알 친구들과 같이 클래스를 하면서 배우는 쪽은 오히려 나 자신이다.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 사람과 사람은 소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를 갈라놓는 가장 큰 장애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나의 행동이 비춰진 그 사람의 미소 속에 있다는 것도 배웠다.

밀알 친구들과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싶다. 친구들의 작품 속에 따뜻한 미소를 그려 넣고 가슴 벅찬 행복도 만들고 싶다. 밀알 친구들이 만든 멋진 작품들이 언젠가 만들어질 밀알 센터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될 것을 믿는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더욱 달려갈 것이다. 🍌

글 | 정재은 (뉴욕밀알, 사랑의교실 미술교실 디렉터)





## ■ 제7회 필라밀알 가족수련회

# 따뜻한 가족이 있기에 밀알은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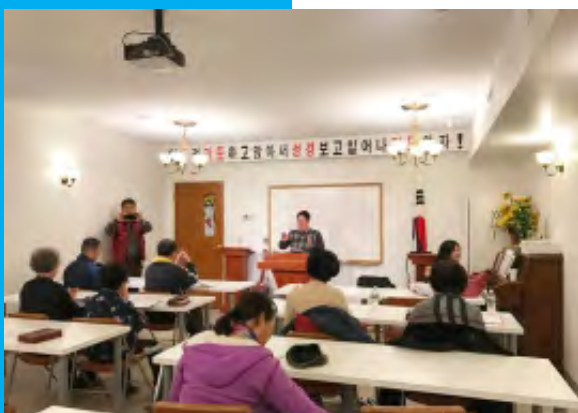
봄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3월. <제7회 밀알 가족수련회>가 '양지수양관'에서 3월 10일(금)-11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열렸습니다. 각자 다른 차량으로 출발하여 수련회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10일(금) 때 아닌 눈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뿌리다 말 것이라.'는 생각은 점점 굵어지는 눈발에 안타까움으로 변져갔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강행하기로 단장님은 결단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단원들에게 방침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나며 '언제 눈이 왔느냐?'는 듯 화창한 하늘이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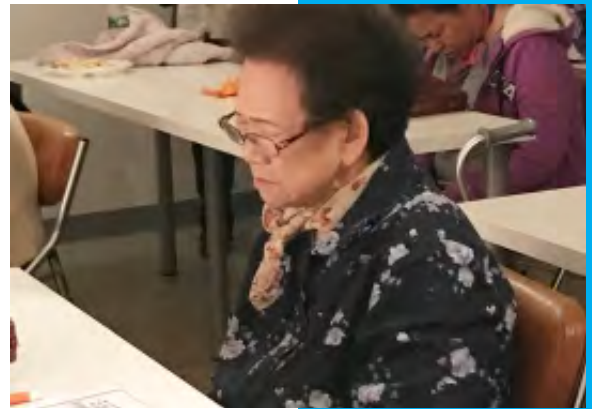


예정 개최시간이 가까워지며 밀알들은 '양지수양관'에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수양관 측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먼저 나누며 수련회의 단원들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설레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8시 정각에 수련회 개최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단장이재철 목사님이 <창세기 수련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본인 창조론을 중심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에 그토록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스며있는 줄 몰랐습니다. 개최예배부터 창세기의 감동은 영적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늦도록 말씀 집회는 이어졌고, 통성기도를 드린 후 일단락되었습니다. 2층에 마련된 남녀숙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모처럼 한 공간에서 밀알들이 잠을 청하는 것이 수련회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둘째 날 새벽, 예배실에서 성경을 보며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방편은 기도밖에 없음을 밀알가족들은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듣는 창세기 말씀은 깊은 샘물처럼 영혼을 적셔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창세기 수련회>는 맥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실로 '신묘막측'한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음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는 은혜의 호수에 잠겼습니다.





완벽한 환경인 '에덴동산'에 살았으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욕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정오로 수련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화요 믿음의교실에서 창세기를 깊이 다뤄달라!”는 단원들의 간청을 접수하면서 말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배려와 아량을 배운 수련회였습니다. 또한 장소인 '양지수양관'은 '침과 회복'을 단원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양지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온 정성을 다하여 밑알을 섬겨주셨습니다. 밝은 표정과 자연산 음식으로 최고의 식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두만 목사님'의 자상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역대 밑알 가족수련회〉

제1회-2011년 3월 4일(금): 변윤미 집사댁 / 제2회-2012년 3월 12일(금): 브니엘교회 / 제3회-2013년 3월 21일(목)-22일(금): Sandy Cove 수양관 / 제4회-2014년 3월 21일(금): 1부 예배 후 랭커스타 '기독교뮤지컬' <모세> 관람 / 제5회:2015년 3월 13일(금): 밑알선교센터(새성전: 랜스데일) / 제6회: 2016년 3월 14일(금): 밑알선교센터

글 | 필리밑알 편집부

■ 함께하는 소망

## 우리 함께 꿈꿔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의 한 가족  
주 우릴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리 함께 걸어요〉란 곡의 가사다. 지난 2월 20(월)부터 22일(수) 2박 3일간 미주밀알 사역자 컨퍼런스를 다녀와서부터 이 곡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남들은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세상은 뿌리쳤던 손, 우리가 잡아요. 장애인의 그 따스한 손을...

“우린 주의 한 가족” ‘한 번 밀알은 영원한 밀알’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릴 하나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방치됐던 장애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장애인들과 영원한 밀알이 되어요.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밀씨를 뿌리며 하나님께 구해하신 밀밭의 꿈이 이뤄질 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주의 나라 이뤄질 거예요.

나에게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들렸다.

처음엔 무슨 행사인지 무슨 모임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컨퍼런스를 가기로 작정하고 참석했다. 서부, 중부, 동부, 캐나다, 남미. 아메리카 대륙에 밀알을 뿌리고 밀알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단장님들, 동역자들이 모두 모였다. 서로 얼굴에 반가운 모습이 역력했다. 물론 나처럼 몇몇 낯익은 얼굴이 있더라도 이 모임이 어색한 이들도




# 드넓은 밀밭의 꿈을



보였다. 하지만 밀알이 가지고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은 곧 그러한 어색함을 물리치게 했다.

‘주님의 일 하는 사람 중에 어디 나쁜 사람 있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모인 분들은 하나같이 좋고 나쁨의 기준을 떠나 편안함과 다정함과 따스함을 지녔다. 적어도 내가 만나본 사역자들 중에는 모두 이러한 편안함, 다정함, 따스함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평소에도 밀알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아내와 말하곤 했는데, 정말 밀알이 가진 특별함을 모든 밀알의 사역자들은 갖고 있었고 그 특별함을 맘껏 뽐어내고 있었다. 순수하고 맑고 때 묻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하며 뒹구는 이들이다 보니 그들을 닮아 그러는가 보다.

2박 3일간의 뻑뻑한(?) 일정 속에서도 웃음은 우리의 곁을 지켰고 떠나지 않았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작정한 듯 연신 웃음을 흘리고 다녔다. 분명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속상하고, 분통터지고, 힘들고, 지쳤음에도,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런데 나는 너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 너를 통해 내가 힘을 얻는다’는 듯 서로를 배려해주며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다. 각 지단별 사역의 노하우들도 전수해 주고 족구, 피구도 함께 하며 땀과 열정을 쏟아냈다.

보잘것없고 작은 한 알의 밀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록 나란 사람은 보잘것없고 비루하지만 밀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한 알의 밀씨가 되기를 꿈꿔 본다. 나의 마음속에도 여느 밀알 사역자들이 가진 편안함, 다정함, 따스함이 움트길 바라본다. 밀알의 사역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함께 꿈꿔 본다. 드넓은 밀밭의 꿈을...

글 | 박성민 전도사 (뉴저지밀알, 간사)

## 희망의 노래

2014년 2월에 가깝게 지내온 목사님의 소개로 뉴저지밀알 중부 사랑의교실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목회에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생각하였기에 시작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장애인 사역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느꼈기에 딱 1년 정도만 경험을 쌓고 사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3번의 사랑의캠핑을 경험하고 3년의 시간이 흘러 여전히 이 자리에서 사랑의교실 사역자로서 감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의 1년이라는 계획과 다르게 왜 나는 3년 넘게 장애인 사역을 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이 글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이 사역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장애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의 관계가 의미 있고 깊어졌습니다. 둘째로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영성을 전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밀알 사역을 시작할 때, 장애인 사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기에 목회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해야할지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 사역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가르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진지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해서 인도해 보았지만 마치 혼자 허공에 대고 떠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아예 듣지 않고 예배당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며,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상한 소리를 내고 화장실에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로 설교의 흐름이 깨지기도 하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고 암기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이조차도 5분이 지나버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들의 말에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3년의 장애인 목회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단 순히 단어의 전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사랑의 전달이 단어 자체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자는 단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애인 개개인에게 성령



님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단어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까먹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혼의 울림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문장이라도 더 외워서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 경험을 통하여 나 자신의 생각들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단어를 살리시며 움직이시고 이 단어가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장애인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라고 무시하고 말씀 준비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의 두뇌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강함 울림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년여 기간 동안 많은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이 밀알 사역을 거쳐 갔습니다. 어떤 분은 1주일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5년 이상 꾸준히 봉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장애인 친구들이 내가 전하는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에 감정이 교류해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에 이곳에서 나의 존재감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기에 일찍 손을 놓아 버립니다. 사실 오랫동안 함께 하면 종종 장애인 친구들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둘째 이유로는 어떤 분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통해 장애인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장애인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실망과 상실감에 빠져 본인의 존재의 의미를 놓쳐 버리곤 합니다.

왜 밀알에 와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며 섬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란트로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해서 받는 복과 사랑, 그리고 깨달음이 많기에 오히려 이 사역의 수혜자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마음은 그들을 동등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똑같은 인격체로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함께 즐긴다면 수많은 기쁨들이 그 안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장애인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모두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염려는 아마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고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지만 넘지 못하는 현실의 벽 앞에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로 장애인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은 유전적으로 덜 진화되고 덜 개량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장애인들이 단지 불편하고 부족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더 귀하고 귀한 존재이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희망의 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옆에는 내가 없어도 누군가가 평생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좋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

글 | 최호경 목사 (뉴저지밀알, 중부 사랑의교실 담당)





## ■ 밀알지단 소개

# 아르헨티나밀알에서는

2016년 7월 18일 공식적으로 아르헨티나밀알 설립예배를 드렸지만 2016년 6월 9일부터 밀알목요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요모임에는 아르헨티나 한국교민 1.5세대, 2세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20여 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축제가 열립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모임도 방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시 밀알모임을 생각하며 2017년 CONECTADOS (연결됨)모임을 새롭게 계획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 열릴 모임은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밀알카페에서 만남의 장소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애인이 봉사자가 되며, 전도자가 되고, 앞으로 밀알회원들은 선교팀을 꿈꾸고 있습

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 4:35).

남미는 크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큰 수도 외에는 장애가 있다면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살기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장애인의 권리, 계몽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더더욱 장애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남미에는 장애인 편견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일반 사회에는 장애인이 잘 어울리는데 교회에는 없습니다. 모르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두려운 것일까요?



밀알을 만나기 전부터 남미 원주민 장애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밀알사역자로서 원주민 장애인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들이 장애인 선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작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주민 교회나 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장애인 사역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연락합니다. “저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밀알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은 없지만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

글 | 이주희 전도사 (아르헨티나밀알 단장)

##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르헨티나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밀알모임이 확장 되고, 밀알 카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2. 아르헨티나 원주민 교회들과 장애인 선교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3. 주님의 뜻 안에 좋은 사역자들 만나서 먼 곳에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4. 남미지역총단(브라질 최은성 단장, 파라과이 강미숙 단장, 아르헨티나 이주희 단장)이 주님의 사랑, 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할 수 있도록.

## 뉴욕

### 〈제9회 함께 걸음 한마당〉 장애인인날 기념식

4월 22일 장애인인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선교단 식구들은 올해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기 위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장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시간입니다. 지역 사회에 장애인인날의 의미를 알리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올해는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뉴욕대학에서 사회복지 박사 과정에 있는 형제를 초청하여 간증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2일(토) 오전 11시 퀸즈한인교회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 화요찬양 예배와 성경공부

장애인들을 위한 성경공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는 장애와 장애의 구분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데 인색했던 것을 회개하며 밀알 친구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며 전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장애인 사역자가 우리 밀알 장애인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IN2 Church 청년부 점심 제공

뉴욕밀알 토요 사랑의교실에서 꾸준한 자원봉사자로 함께해 주고 계신 IN2교회 청년부에서 3월 25일 피자와 샐러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를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함께 나눌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밀알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것을 보면 나눔과 사랑은 진심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IN2교회 청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샘 오 전도사 사역을 위해

뉴욕밀알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샘 오 전

도사는 지역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모자이크교회에 초빙을 받고 청년 세미나를 이끄시고 또 새벽기도 말씀을 인도하셨습니다.

뉴저지 지역 교회에서 찬양 부흥회를 이끌며 밀알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샘 오 전도사가 밀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역 사회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해주세요!!

•토요 사랑의교실 어린이 반을 6년 동안 이끌어 오신 최정숙 선생님께서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항암 치료를 잘 이겨냈고 4월 17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송 단장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최근 가족 중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급하게 한국을 방문하시어 수술을 지켜보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밀알선교단 일에 몰두하시며 본인 건강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Social Service

3월15일 김민규 신경정신과 진료 / 3월28일 유명희 발병원 / 4월4일 이순영 SSI 인터뷰 / 4월5일 이순영 OPWDD / EAA 인터뷰

## 뉴저지

### 헤이나, 만나서 반가웠어!!

헤이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헤이나가 밀알 화요모임을 방문해주었습니다.

헤이나 아빠, 신태훈 목사님께서 이 날 화요모임에서 귀한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신앙 간증, 헤이나를 통해 요르단에서 선교의 문이 열린 이야기 등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걸림돌이 될 뻔한 헤이나가, 선교의 물꼬를 트는 통로가 되었다는 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화요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헤이나가 우리 밀알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화요모임 음악시간

화요모임 음악시간에는 박동훈 목사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목을 풀어봅니다. 우리의 성대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연습하면 할수록 더 노래를 잘 할 수 있다고 박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밀알 친구들도, 봉사자 친구들도 모두 열심히 “아아아” 하며 목을 푼다.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친구들 소리가 처음보다 조금 나아진 듯 느껴집니다.

4월 22일 장애인인날 기념행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일정 조정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들으러 오세요.

### Winter Storm Stella

봄을 맞이하려고 나무들마다 꽃봉오리가 피어나는데 다행은 3월 폭설로 인해 3월 21일 밀알 화요모임과 방과후학교가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밀알 친구들도 집 안에 공공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상점들도 문을 닫고 거리에도 오후 늦게 까지 제설 차량을 제외하고는 오가는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많은 이들의 수고로 도로는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치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밀알 방과후학교도 다시 문을 열고 밀알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 밀알 친구들의 발이 되어주세요!!

그동안 사랑의교실과 주일학교의 밀알 친구들의 라이드 봉사를 해주셨던 장시원 집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사랑의교실과 주일학교 라이드 봉사를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랑의교실과 주일학교의 밀알 친구들을 라이드해주실 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교실 라이드는 오전 11시 전까지 Dumont에 위치한 Calvary UMC로 친구들을 태워다주시면 되고, 오후 3시에 친구들을 각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면 됩니다.

주일학교 라이드는 오전 11시까지 꿈터로 친구들을 태워다주고, 오후 2시에 각자 집으로 데려다주면 됩니다. 꿈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점

심식사 후 데려다 주셔도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밀알에서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밀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과 후 학교

3월 방과 후 학교에서는 언제나처럼 찬양하며, 춤추며, 북을 치며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미노 게임을 하며 꽤 진지하게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 모습에 또 즐겁습니다.

## 중부 사랑의교실

중부 사랑의교실에서는 첫째 주에 Camden에 위치한 수족관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거리가 멀었지만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Gus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 오신 김미희 선생님께서 인도해주시는 ART and Craft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과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필라델피아

### 제3회 곱나무 큰잔치(5월 13일)

2016년에 시작한 <곱나무 큰잔치>가 세 번째 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서재필 재단 자폐아동 학부모모임'(담당:세라 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작한 <곱나무 큰잔치>는 금년에는 영생장로교회(담당:백운영 목사)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서재필 재단 자폐아동 부모모임'과 '필라델피아 선교단', '영생교회 사랑부', '안디옥교회의 장애인 부서'가 연합하여 축제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그리고 각 교회와 단체의 협력으로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밀팅(7일)

올해 첫 밀팅이 열렸습니다. 28일(화) 다른 때보다 이른 시간인 오후 6시에 모여 <화요 믿음

의교실> 예배를 드리고 밀팅 장소인 '서울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2부에는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려 들었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펼치며 밀알이 하나 된 의미 있는 '밀팅'이었습니다. 특별히 김도환 형제님이 차분히 모아놓았던 용돈으로 밀알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짜장면 Day(4일)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몽고메리교회'(최해근 목사 시무) <제2남전도회>에서 사랑의교실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중국 음식점 '상하이'로 초대하여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회장 '이기복 집사님'과 직접 뺨을 운전하여 '설신형 목사님' 그리고 담임 '최해근 목사님'이 동참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짜장면 뿐 아니라 요리까지 곁들여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몽고메리교회와 제2남전도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7회 가족 수련회(10일-11일)

장애, 비장애를 초월하여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되는 '밀알가족수련회'가 7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출발하는 10일(금) 난데없는 폭설이 내려 당황하였지만 아무 지장 없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로 수련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며 시종 은혜로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nursing home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모처럼 해방감을 맛보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양지교회' 담임 장두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음식은 물론 숙소까지 세세히 배려해 주심으로 밀알은 안락한 분위기에서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별지 기사 참조)

### 믿음의교실 식사봉사(21일)

한 달에 한번 어김없이 믿음의교실의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장애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담임목사 사모님은 특별히 맛있는 '육개장'을 끓여 오셔서 단원들의 입맛을 돋워주셨습니다. 한편, '예수사랑교회'는 4월

1일부터 <밀알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봉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한나 사모님 순산(16일)

간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문재민 목사님' 가정 에 경사가 났습니다. 둘째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순산을 위해 밀알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산모인 '한나' 사모님과 아가 모두 건강합니다. 16일(목) 예정보다 조금 이르게 태어난 딸의 이름은 '문소망'으로 지어졌습니다. 언니 '기쁨'과 함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한편, 태어난 손녀를 보기위해 한국에서 부친 '문금배 목사님' 부부가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문 목사님, 한나 사모님, 축하합니다!

### 토요 사랑의교실 방문 교회

11일(토) <기쁨의교회>(담임:박성일 목사) '마리아 선교회' 채승아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2017년 처음으로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겨울 기운을 헤치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장만하여 친히 밀알 선교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일 년에 세 차례. '3월, 6월, 9월'에 사랑의교실을 찾아오는 마리아 선교회 회원님들은 회장님을 비롯하여 '송지윤, 안정렬, 최영지, 김지은' 회원님들이 화사한 표정으로 아동들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18일(토)에는 <성도교회>(담임:정인원 목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사랑의교실의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선교회> '김재경 회장님'을 비롯하여 '박금희 권사님, 장근희 권사님, 김숙근, 남옥자, 하영숙, 박한란, 양상연 집사님'과 하리사 자매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자상하게 아동들을 살피시며 관심을 보여주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 단장 한국 방문(23일)

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집회인도와 친지 방문 차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세계밀알연합회 '이재서 총재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이사장이신 '이근민 목사님'을 만나셨고, '부산, 통영, 목포 밀알선교단' 그리고 경기밀알선교단에서 설교를 하시며 사역자 간에 끈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 단장 차녀 결혼예식(5월 13일)

단장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딸 '인애'양이 화촉을 밝힙니다. 신랑의 이름은 '이중은'. 2017년 5월 13일(토) 오후 6시. 필라임마누엘교회에서 '김태권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주시시오.

##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주실 마음 따뜻한 분들을 필요합니다. 성인장애인 모임인 '화요 믿음의 교실'(매주 화요일)에 장애인들을 라이드해주실 분, 악기연주와 찬양으로 모임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봐주실 분들도 기다립니다. Youth Group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Credit을 발행합니다. 9학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215-913-3008

## 화요 '믿음의교실'

### <매주 화요일 PM 7:30분-9:30분>

단원 동정: 3월 16일 '하나 사모님'이 둘째 딸 '소망'을 순산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정신원 집사님'이 4월 5일 전립선 종양수술에 성공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7일:'밀팅'-김도환 형제님이 호스트가 되어 마음 따뜻한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 14일:'폭설로 휴교' / 21일:'밀알 특강' - 단장님께서 '밀알의 3대목적'과 '밀알 10대 강령'을 특별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 28일:'영상 감상' -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한 영상을 감상하며 전시행정에 관한 한계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 토요 '사랑의교실'

### <매주 토요일 AM. 10:00-P.M. 4시>

10:30 환영/10:50 찬양과 예배/11:30 성경 읽기, 그림 그리기/12:00 점심식사 /1:00 야외 활동/2:00 영화 감상, 작품 활동/3:00 핸드벨 연습/4:00 정리 및 폐회

4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빈이와 예지가 찬양팀으로 울동을 인도해 주었고, 수영이도 익숙한 찬양이어서 그런지 예지와 예빈이 옆에서 성실하게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연이가 한국어 찬양과 울동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사도행전 2:

2-3)을 중심으로 불의 허갈이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들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센터로 돌아와서, 국민체조와 전통체조로 신체운동을 한 후에 캐치볼과 풍선 테니스로 대 근육 훈련과 주의 집중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한명씩 나와서 2분 정도씩 스포츠를 하고 쉬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20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도록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성실하게 잘 임해 주었습니다.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놓고 기도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주의 천사를 통해 옥문이 열리는 craft 활동을 하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국민체조와 국민 건강기본체조로 신체운동을 돕고, 캐치볼, 풍선테니스, 지그재그드리볼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시도해 본 지그재그드리볼은 주의집중력과 신체조정 능력이 매우 필요한 활동입니다.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력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수영, 조셉, 진우 등은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해 낼 수 있었으며, 다른 친구들도 함께 뛰여주며 도와주었을 때 잘 따라 올 수 있었습니다.

18일: 눈이 많이 와서 움직이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변함없이 즐겁게 사랑의교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도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화심한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미니 스토리 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숫자 빙고게임을 하였는데, 숫자만 알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우리 아이들 모두 의미 있게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국민체조와 전통체조로 몸을 풀어 주

고 테니스와 캐치볼 등의 스포츠를 하였습니다. 일반 공이 아닌 풍선으로 하는 테니스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서 우리 아이들의 참여도와 집중지속력이 매우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25일: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다들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사랑의교실에 모였습니다. 오전 활동으로 오늘은 조각 블록을 가지고 모양 맞추기를 해보았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성균이는 여러 가지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모양에 추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기를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개씩 주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16장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서,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두들겨 맞은 후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포츠 후에는 'Sing'이라는 영화를 감상하였는데,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성공적으로 공연을 이끌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봉사: 4일-몽고메리교회(최해근 목사 시무) '제2남전도회', 11일-기쁨의교회(박성일 목사 시무) '마리아선교회' 18일-성도교회(정인원 목사 시무), 25일-차체.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15-913-3008

## 단장 사역 보고

<설교> 5일(주일):'예수원교회(윤성종 목사 시무)

=한국= 26일(주일):'큰숲교회(황석산 목사 시무) / 30일(목):'경기밀알선교단(단장:여한수 목사)

<방문> 5일(주일) 오후 5시: '이승학 집사' 개업 축하예배 '기도' / 12일(주일)-'성도교회(정인원 목사 시무) / 15일(수)-KAPC 필라노회(영생장로교회) / 19일(주일)-'필라제일감리교회(김덕신 목사 시무) '축도'

## 재정보고 2017년 3월

### 뉴욕

---

수입부: \$19,795.67

**개인: \$1,604.67** \$20 So Hee Kim / \$40 Kil Do Yoo / \$50 Kyong C Burchan / \$60 Lois Ae Bang / \$100 Seop Song, Katherine Lee, Jasong Kim & Byongin Choi, Soon Kyu & Grace Shin / \$500 KI R Chung / \$534.67 Hye Young Kim

**교회/단체: \$6,251.00** \$20 Sky Cleaners / \$30 KS Nail / \$50 Morgan Stanley / \$100 Salon Today, Northern Pharmacy LLC, Woori Church of New York / \$151 화요모임 / \$200 One Heart Church of New York / \$30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The Korean 1st Presbyterian Church of NY Church / \$400 Savior Presbyterian Church / \$500 Woori Church of New York(제3여선교회) / \$1,000 Dashing Diva Franchise Corp / \$1,500 New Hope Reformed Church,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Queens

지정: 1,940.00 SSI

Grant: \$10,000.00 KACF

**장소후원:** 퀸즈한인교회(이규섭 목사) - 토요사랑의교실(어린이반) / 뉴욕 장로교회 - 토요사랑의교실 (성인반&청소년반) / 퀸즈성결교회(조승수 목사) - 화요찬양예배

**물품 및 음식후원:** 권영준, 더큰집, 토요 Society, 월사모, 광승협, Long Island Mom, 하은희낙원잔치집, 한마음스시팀, 구주원꽃집, 총영사관부 인회, Kyle's Kimchi, Paldo

지출부: \$17,477.82

**장애인복지:** \$542.15 비품구입비 \$383.78 / Time Warner Cable \$158.37

**사랑의교실: \$3,530.00** 토요 사랑의교실 운영비 \$2,650 / 비품구입비 \$380 / 식사&간식비 \$500

선교비: \$2,080.21 직원인건비 \$879.29 / 상회비(2017년 2월) \$380.92 / 밀알&세계 \$820

**전도봉사비: \$2,306.82** 활동비 \$800 / 장애인보조 \$1,000 / 경조비 \$349.25 / 출장비 \$157.57.

**사무비: \$7,786.00** 직원인건비(2명) \$4,046.26 / 전기요금 \$446.85 / 세금 \$1,362.18 / 비품구입비 \$1,205.42 / 수리비 \$73.63 / 보험 \$276.66 / 메일 \$225 / Retirement Benefit \$150.

**차량유지비: \$1,232.64** 모기지 \$488.68 / 유지비 \$275.01 / EZ pass \$310 / 수리비 \$154.95 / Parking Fee \$4

전월이월금: \$13,756.23 | 차월이월금: \$16,074.08

**밀알의밤 지출: \$2,050.00** 사무실 렌트비

### 뉴저지

---

수입부: \$28,887.00

**개인: \$7,571.00** \$10 Sugene April Kim, 광선희, 김현진, 서진호, 손주형, 이동수, 이충희&이미경, 조소형, 최윤경, 홍은실&이성운 / \$20 David Oh & Anna Oh, Young I Kim, 강동출, 박광민, 서향원, 안영근, 장영빈 & 장규진 / \$26 Chongwon James Woo / \$30 Rok Hur, Tori Scott & Gary Scott / \$40 서정순, 홍성혁 / \$50 고정화, 김봉례, 신은영, 엄이든 & 엄예든, 이사라, 호민선&호연희, 무명 / \$60 Seung C. Kang, 권영원 / \$100 Andrew Kim & Kyong Kim, Byungkuk Lee & Heasuk Lee, 김경문&김재순, 김영옥, 김일영, 박찬호, 박호경&민춘식, 이영택, 이윤아, 최선호, 최지희, 한원민 / \$200 서정용&서덕희, 이상욱&이옥진 / \$150 이인철 / \$200 강백현, 길민우, 김영삼, 김호진&김정자, 황승희 / \$1,080 Chung's Family / \$2,815 무명

**교회: \$4,626.00** \$100 뉴저지연합교회, 버겐카운티장로교회, 시나브로교회, 예수드림교회 / \$150 리버사이드교회 / \$200 뉴저지침례교회, 뉴저지초대교회 / \$276 한무리교회 / \$300 뉴저지장로교회, 필그림교회 / \$500 갈보리교회 / \$600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하나임교회 / \$1,000 찬양교회

**단체: \$1,440.00** \$40 Young At Heart / \$50 Highwood Auto

Service, SOLDAN America Inc / \$300 노성일 CPA / \$1,000 ADIO

Corrective Chiropractic LLC

**지정후원금: \$4,920.00** <방과후학교 \$1,400: 강한선, 김준영, 김혜성, 오수잔, 이지은, 최다솔> <화요모임식사 \$800: 강덕원&강상훈, 윤미정 &박종훈, 필그림교회권사회, 필그림교회수요기도팀> <방글라데시 \$2,720: Eunjin H. Suh DDS, Texas Milal Mission, 김미나, 송요찬, 정대봉>

**장애인 콤포터: \$10,330.00** \$30 채제동 / \$100 홍호선 / \$200 Jai Sook Kim & Hyun J Kim / \$10,000 무명

**지출부: \$31,344.69**

**사무관리비: \$4,040.64** 간사인건비(3명) \$1,950 / 세금공과금 \$820.58 / 보험비 \$471.11 / 복사기리스 \$353.68 / 우편물발송 \$214.35 / 은행경비 \$50 / 전화비&인터넷 \$180.92

**선교비: \$12,539.46** 단장사례비 \$2,500 / 선교활동 \$277.28 / 선교지원 \$632 / 자동차관리 \$786.13 / 방과후학교 \$1,400 / 화요모임 \$1,078 / 밀알&세계인쇄 \$904 / 밀알&세계발송 \$325 / 중앙비 \$370.80 / 본부사랑의교실 \$3,566.25 / 중부사랑의교실 \$700

**복지비: \$3,788.38** 사랑의집(모기지) \$2,599.07 / 사랑의집운영비 \$376.11 / 유틸리티 \$513.20 / 생활비지원 \$300

**콤포터: \$10,976.21** 이자(2명) \$2,830 / 변호사 \$500 / 공청회 \$6,040 / 유틸리티 \$964.96 / 운영비 \$641.25

**전월이월금: -\$37,699.08 | 차월이월금: -\$40,156.77**

**장소후원:** Calvary UMC, 참빛교회, 찬양교회

**음식후원:** 초대교회, 필그림교회, 디미방, 아리랑왕만두, 은하수잔치집, 프렌즈잔치집, K.Breathren

## 필라델피아

**수입부: \$4,080.00**

**이사회비: \$400.00** \$100 이승학, 이재철 / \$200 차형원

**개인: \$1,780.00** \$20 고영선, 김윤희, 문재민, 박산, 신필립&고은별, 유경자, 황인권 / \$30 김혜심, 무명 / \$50 소인실, 양찬모, 이광영 / \$60 이경애, 이승학 / \$100 김선미, 이중섭, 정문호, 지용운, 무명 / \$300 Paul O. Hong / \$510 이재철

**교회: \$1,450.00** \$100 체리힐평강교회 / \$150 영원한교회 / \$200 기쁨의교회, 첼튼햄장로교회, 필라사랑의교회 / \$300 새한장로교회, 해리스 버그한인장로교회

**단체: \$250.00** \$100 마디병원, \$150 하나투어

**특별지 헌금: \$200.00** \$100 필라중앙장로교회 / \$100 필라30주년 행사

**지출부: \$9,888.57**

**선교비: \$4,308.49** Gas 및 심방비 \$396.23 / 장학금 \$300 / 본부사역 분담금 \$1,800 / 단장사례비 \$1,200 / 활동비 \$300 / 상회비 \$300 / 자동차보험비 \$123.26 / 상회비 \$189

**사무관리비: \$1,013.54** 간사사례 \$600 / 통신비 \$132.72 / 믿음의교실 \$100 / 인터넷 \$155.34 / 사무용품 \$11.71 / 수정테이프 \$3.18 / 행사사진 \$10.59

**건물 유지비: \$747.56** 모기지 \$300 / 정수기사용료 \$38.99 / 전기세 \$238.12 / 난방비 \$70.92 / 물세 \$28.20 / 하수도세 \$71.33

**사랑의교실: \$1,000.00** 사랑의교실 운영비 \$800 / 사랑의교실 교육비 \$200

**미디어선교: \$1,062.03** 밀알&세계 발송비 \$192.09 / 밀알&세계 인쇄비 \$820 / 편지리턴 \$1.19 / 우표 48.75

**복지부: \$1,200.00** 사택보조비

**특별: \$556.95** 밀알컨퍼런스 행사비 \$494.34 / 30주년행사준비 \$62.61

**전월이월금: \$17,621.51 | 차월이월금: \$11,812.94**



#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 실행단원( ) 후원단원( ) 월 \$5( ) \$10( ) \$20( ) \$30( ) \$50( ) \$100( ) 그외 \$( )

서명: \_\_\_\_\_ 날짜: \_\_\_\_\_

##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301호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smilal@milalmission.com

### Milal Mission in New York 뉴욕밀알선교단 | www.nymilal.org

42-19 Bell Blvd., 2FL Bayside, NY 11361 / Tel: 718-662-8779 / Fax: 718-445-4887 / Email: nymilal@hotmail.com  
Group Home: 142-44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Tel: 718-445-4442 / Fax: 718-445-4887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토요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00	아동반: 퀸즈한인교회 베드로관 청소년반/성인반: 뉴욕장로교회
그룹홈 운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형태의 생활공동체		Group Home
컴퓨터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1:00 ~ 3:00	Group Home
Cooking Class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Group Home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월사모)	매월 첫 주 월요일	오후 6:00 ~ 9:00	
직업재활(교회청소)	성인대상, 교회 환경 미화		

### Milal Mission in New Jersey 뉴저지밀알선교단 | www.mijumilal.org

1225 River Rd. Teaneck, NJ 07666 / Tel: 201-530-0355 / Fax: 201-530-0344 / Email: miju92@gmail.com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30 ~ 9: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분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Calvary UMC	185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중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6:00	찬양교회	15 Ceder Grove Ln, Somerset, NJ 08873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밀알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2:30	밀알 꿈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 www.philamilal.org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화요모임 <민음의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3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성인 장애인 및 단원들의 모임, 찬양, 예배, 수화 배우기, 수화 찬양,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발달 장애 아동 Day Care, 찬양, 예배, 교육, Trip 등			
밀알의소리 라디오 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11:30	필라 기독교방송국 AM 1590 Mhz

### Milal Mission in Canada 캐나다밀알선교단

1183 Davenport Rd. Toronto, ON, M6H 2G7 / Tel&Fax: 416-491-0002 / milalcanada@hot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성산장로교회(지하교육관)	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
스텝미팅	매주 토요일	오후 5:00		

##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미주밀알선교단** 워싱턴 / 볼티모어 / 버지니아 / 리치몬드 / 샬럿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뉴저지(중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남가주LA / 남가주OC / 텍사스 / 하와이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유럽밀알선교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오스트리아 / 화란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한국밀알선교단** 강원 / 경기 / 고성.사천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김해 / 거제.통영 / 경남(진해) / 마창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파주 / 양산 / 경기광주

**기타밀알선교단** 뉴질랜드 / 호주 / 러시아 브리야트 / 인도 / C국(A,B) / 태국 / 네팔 / 이집트 / 카자흐스탄